

가가 있었다.

3) 골전이의 증거가 없던 환자중 5예에서 골스캔 양성을 보였는데 이중 2예는 다른 장기에 원격전이가 증명된 경우였고, 나머지 3예에 있어서는 신절제술 후 1년이상 추적하고 있는 바 1예에서는 골스캔이 음성으로 전위되었고, 2예의 경우 골전이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위의 결과를 볼 때 골스캔에서 이상소견을 보이는 환자에서 골통증, 혈청 Alk'p의 증가, 방사선 소견 양성등 골전이를 제시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추적조사상 골전이의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골스캔이 임상적으로나 방사선학적으로 의심되는 골전이를 확인하고 그 정도를 측정하는 데는 의미가 있겠으나 환자의 staging에는 무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진단초기에 시행되는 골스캔이 staging의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Unilateral Thoracic Soft-Tissue Accumulation of ^{99m}Tc-MDP in Lung Cancer

Hyun Kim, M.D., Woo Jin Yang, M.D.
Soo Kyo Chung, M.D., Choon Yul Kim, M.D.
and Yong Whee Bahk, M.D.

Department of Radiology,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Seoul, Korea

Soft-tissue uptake of bone imaging agents has been reported in a number of disease states, including lung cancer, metastatic tumor to the lung, pleural effusions containing malignant cells, and malignant ascites. Abnormal accumulation in soft-tissues is usually the result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actors: increased blood flow, calcification, enzymatic interaction, or changes in endocrine function. Some authors insisted that the radiation therapy to lung tumors was the most significant of the factors in unilateral soft-tissue uptake of bone agent in the thorax of patients with lung cancer.

Seventy three patients with lung cancer were studied to determine the incidence of unilateral thoracic soft-tissue accumulation (UTS) of ^{99m}Tc methylene diphosphate (MDP)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diation therapy and UTS of MDP.

The unilateral thoracic soft-tissue accumulation of ^{99m}Tc-MDP was noted in 5 (6.8%) of 73 of the patients. Of 14 patients who had received radiation therapy to the primary tumor in the chest, 2 (14.3%) had UTS, while 12 (85.7%) did not. Among the remaining 59 patients who had not received radiation therapy, only 3 (5.1%) patients had UT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tatistics between the group of radiation therapy and of non-radiation therapy (p=0.542).

In conclusion, radiation therapy to lung tumors was not significant of the factors in unilateral soft-tissue uptake of ^{99m}Tc-MDP in the thorax of patients with lung cancer.

33. ^{99m}Tc-MDP 골스캔을 이용한 폐암의 골전이성에 대한 후향적 분석

서울의대 핵의학과

양승오 · 고은미 · 이명혜
이명철 · 조보연 · 고창순

폐암은 비록 그 예후가 나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각 환자에서의 정확한 병기결정은 치료방침의 확립과 예후 결정에 중요하다. ^{99m}Tc 인산복합체를 이용한 골스캔은 골전이의 조기진단에 예민하므로 단순방사선학적 검사보다는 치료전에 환자의 병기결정에 유용하다고 인정되어 왔다.

최근 2년간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폐암환자중 치료전의 골스캔을 얻을 수 있었던 202예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1) 남자가 85%, 50세이상의 연령이 85%였고, 전체적인 골스캔의 골전이 양성률은 43% (87/202)였다. 비소세포폐암에서는 44% (60/135), 소세포폐암에서는 40% (27/67)였다.

2) 비소세포폐암중에서는 선암이 61% (19/31)의 골전이 양성률을 보였고, 소세포암의 Extensive stage에서 63% (12/19)였으며, 비소세포폐암의 임상적인 stage II에서 28%, stage III에서 50%의 골전이 양성률을 보였다.

3) 전체 87예의 골전이 소견중 고립성 전이소견을 보인 경우는 18예였으며, 다발성 69예의 골분포 양상은 늑골 및 흉골(70%), 요추(32%), 흉추(28%), 대퇴골(28%), 골반(26%), 두개골(23%)등의 순이었다.

4) 골 통증이 있었던 환자 67예중 골스캔상 골전이가